

인사의말

우리 민족이 광복을 누린 50주년이 올해 12월에는
특별한 하늘의 개로가
여러분의 화신으로 우리 2백 주인의 사랑을 이룩하는 일에
더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역 연구소는 지난 9월 민족적 협동정신을 사색심을 이끄러고
앞으로 맞이하게 될 시민주체화시대에
책임있는 연구소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
사람을 다룬다 계획으로 95년도에 일을 시작하였음.

93년 4월 ~ 지난 9월 까지 16개월간 본연구소의 총하는
한글·사회과학 연구자 정책사업활동에 전념하기 위한 준비로
연구의 책임부담 대학에서
한글문제를 집중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귀중한 기회였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나누어 주신 말씀을 살피고 연구자를 보강하여
지역 한문문제를 국제적 안목으로 보아 주시며
국제 한문문제로 대안을 제시하는 운동으로 이룩하는 일을
이해를 증진한다는 각오로 하려고 하고 있음.

그동안도 지역연구소의 활동을 위해
물심 양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켜보시며 힘이 되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우리 민족이 해내려는 일과
한글·사회과학문제를 위해 앞서는 모든분들께
이 자리를 돌려드리고자 하오니 사해인사 드립니다.

사해에 복음이 있으시기를.

1995년 1월
한글·한문·사회과학 연구소
소장 박영호 드림